

악행(惡行)의 서사화 방식과 진지성의 문제

—〈현몽쌍룡기〉를 중심으로—

조혜란*

— <차례> —

1. 서론
2. 〈현몽쌍룡기〉의 악인형 인물과 악행의 특징
3. 〈현몽쌍룡기〉에 나타난 악행의 의미
4.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현몽쌍룡기〉의 악인형 인물들의 악행이 작품의 문제의식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따져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현몽쌍룡기〉는 반동인물로 악인형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저지르는 악행이 서사 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그 종류가 다른 작품들에 비해 매우 충격적이고 자극적이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악행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부자간의 강상 윤리를 거스르는 범죄들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작품에는 자식이 부모를 향해 칼을 들거나 혹은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자객을 고용하며 또 다른 아버지는 자기를 죽이려던 자객으로 아들을 지목한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아들의 패륜으로 인해 가문 유지가 어려워질 것 같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호적에서 제하고 손자를 친아들로 삼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상소를 올리는 사건도 있다. 〈현몽쌍룡기〉의 악행은 광해군의 인목대비 폐위나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이고 정조에게 왕위를 물려준 역사적 사건을 환기시킨다.

이 작품의 악행은 심각하고 진지한 문제를 던진 것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작품에서 악행이 서사화되는 방식을 고찰하면 이 작품이 문체적인 작품에 가까울지 아니면 오락을 원하는 독자의 취향에 맞춘 통속적 서사에 가까울지가 판단 가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능할 것으로 보인다. 가문 서사를 다루는 국문장편소설은 이제 전반적으로 연구사가 어느 정도 축적되었으며, <현몽쌍룡기> 역시 작품의 기본적인 성격은 이해가 능할 정도로 연구사가 쌓였다. 연구사의 단계에서 볼 때 이제는 국문장편소설도 개별 작품의 작품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본고는 이런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현몽쌍룡기>의 악행을 고찰하였으며 그 결과 이 작품은 문제적인 작품에는 못 미치며, 웰메이드플레이(well-made-play)처럼 단지 잘 만들어진 서사에 가까움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현몽쌍룡기>, 악인형 인물, 악행, 통속성, 강상 윤리, 반동인물, 패륜

1. 서론

자아와 세계의 갈등을 축으로 전개되는 소설의 서사는 풍부한 이야기성으로 독자들의 유희 본능을 충족시켜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진지한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작품의 서술자가 갈등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해결 방식은 그 작품의 문제의식과도 관련되므로 서술자가 문제를 설정하고 접근하는 방식은 해당 작품의 문제의식이 얼마나 진지한가를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 작가가 서사를 통해 견지하고 있는 문제의식은 바로 소설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적 사건들을 통해 독자들과 만나게 되는데, 이 사건들은 주인공에 해당하는 주동인물(protagonist)과 이와 대립각을 이루며 갈등을 제공하는 반동인물(antagonist)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반동인물이 반드시 악인형 인물인 것은 아니나 고전소설의 경우 반동인물은 대개 악인형 인물들일 확률이 높다. 흔히 고전소설의 주제를 거칠게 언급할 때 ‘권선징악’이라는 표현으로 포괄할 만큼 고전소설에서는 선악의 문제가 분명하고도 뚜렷하게 제시되며, 선은 선인인 주인공 편이 서사로, 악은 주인

공을 고난에 처하게 하는 악인의 서사로 전개된다. 전술했듯 소설의 서술자가 갈등을 설정하고 다루는 방식이 그 작품의 문제의식과 관련된다면 작품이 현실을 매개하고 반영해 내는 문제의식의 진지성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선인형 인물의 행위만이 아니라 악인형 인물의 행위 역시 중요하다.

고전소설에서 악인형 인물로 뚜렷하게 기억되는 인물로는 <사씨남정기>의 교채란을 들 수 있다. 고전소설사에서 17세기는 악 혹은 악인이 비중 있게 등장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거론되는데¹⁾, 예를 들어 김만중이 구축해 낸 교채란이라는 악인형 인물은 가부장제를 강화해 가던 17세기 조선 사회가 원하는 여성상의 구현이라는 작품의 주제와 밀접하게 맞물린다. <사씨남정기>의 악은 주인공의 선을 강화해 주는 표지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주제와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씨남정기>는 교씨만이 아니라 냉진, 동청 등 절대악에 가까운 악인형 인물을 등장시켰어도 17세기 조선 현실에 대한 작가의 소설적 대응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진지한 문제의식의 발로로 평가받고 있다²⁾.

<사씨남정기>와 같은 가정소설은 가족 내 갈등을 다루는 하위장르로, 대개 악인형 인물이 등장하여 선악 대결 구도를 펼친다. 그런데 선인형 인물 대 악인형 인물의 대결 구도는 가문 구성원들 사이에서의 갈등을 다루는 국문장편소설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일명 가문소설이라고도 불리는 국문장편소설에 등장하는 가문들은 소위 벌열에 해당하는 가문들을

1) 17세기 소설사와 악인형 인물의 등장과 관련해서는 정환국, 『17세기 소설에서 ‘악인’의 등장과 대결구도』, 『한문학보』18, 우리한문학회, 2008; 박희병, 『17세기 초 송명배 호론과 부정적 소설주인공의 등장』, 『한국고전소설과 서사문학(상)』, 집문당, 1998; 조현우, 『<사씨남정기>의 악녀 형상과 그 소설사적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3,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6; <사씨남정기>를 비롯한 가정소설의 악인에 대해서는 박경열, 『가정소설에 나타난 악인의 형성조건과 그 의미』, 『겨레어문학』39, 겨레어문학회, 2007 참고.

2) 조현우(2006), 정환국(2008)의 논의가 이에 해당한다.

배경으로³⁾ 혼인을 둘러싼 갈등이 소설의 중요한 축을 이루며, 서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악인형 인물의 행동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국문장편소설에서는 악인형 인물들의 악행이 매우 구체적으로 서사화되는데, 혼사 및 부부 갈등이 주된 서사축을 형성하는 가문 서사⁴⁾에서는 특히 여성의 정절 모해가 중요한 모티프가 된다. 본고에서 다루려는 <현몽쌍룡기>⁵⁾ 역시 주인공 가문에 영입된 두 여성인물들의 수난담을 중심으로 가문 서사가 펼쳐진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다수의 악인형 인물이 등장하여 서사를 추동하고 그들이 선택하는 악행의 성격 또한 파격적인 측면이 있어 주목을 요한다.

<현몽쌍룡기>는 임치균에 의해 <조씨삼대록>과의 연작 관계가 밝혀진 이래 연구가 지속되어 작품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일정 수준의 검토는 이루어진 것을 보인다⁶⁾. 이 중 <현몽쌍룡기>에 등장하는 악행이 비중 있

- 3) 조광국, 「<소현성록>의 별벌 성향에 관한 고찰」, 『온지논총』7, 온지학회, 2001 참고.
- 4) 이들 가문 서사에는 전쟁담도 등장하지만 이는 주로 주동인물을 부각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 5) <현몽쌍룡기>는 작가나 창작 연대가 미상인 국문장편소설이다. 그런데 이 작품과 연작 관계에 있는 <조씨삼대록>의 제목이 1848년에 작성된 홍희복의 <제일기언> 서문에 언급되어 있다. <조씨삼대록>은 <현몽쌍룡기>의 후편이므로 <현몽쌍룡기>는 1848년보다는 앞선 시기에 창작되었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기존 논의 중 허순우는 <제일기언> 서문과 더불어 이 연작의 어학적 특징, 등장인물의 성격, 갈등 양상, 불교에 대한 시각 등을 근거로 들면서 이 연작의 창작 연대를 18세기로 추정하고 있다. 허순우, 「<현몽쌍룡기> 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2009, 10-11.
- 6) 이 작품에 대한 기존 논의는 다음과 같다. 임치균은 <현몽쌍룡기>와 <조씨삼대록>과의 연작 관계를 밝혔으며, 조용호는 이 작품을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이라는 하위 장르에 속하는 작품으로 다루었고, 박일용은 친정 식구들이 자신의 딸이나 누이를 고난에 빠뜨리는 악인형 인물로 설정된 이유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최수현은 정소저·양소저 두 며느리의 경우를 대비적으로 서술하여 처가와외의 거리를 유지하는 문제를 작품의 주된 관심사로 부각하였고, 김문희는 작품의 문체적 특징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허순우는 연작의 서사적 흐름 속에서 <현몽쌍룡기>의 작품론을 시도한 바 있다. 장시광은 이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들의 수난담을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강미선

게 다루어지는 논의는 박일용과 장시광의 논의인데, 박일용의 논의는 친정 쪽에 악인형 인물을 설정한 것에 대한 해석이 주된 관심이고 장시광의 논의는 여성 수난의 성격을 고찰하는 것이 주된 관심이어서 악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현몽쌍룡기>는 전체 18권 중 15권까지의 서사가 악인들의 반동 행위를 기반으로 하여 전개될 정도로 작품에서 악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그러므로 이 작품에 설정된 악행이 전체 서사 속에서 차지하는 의미나 주제와의 관련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는 좀 더 천착이 필요하다. <현몽쌍룡기>는 악인형 인물들에 대한 징치가 해결되면 서사가 마무리되는 수순을 밟을 정도로 비중 있는 악인들이 등장할 뿐 아니라 그들의 악행은 자극적이고 파격적이기까지 하다. <현몽쌍룡기>의 이 같은 악행의 설정이 단순 흥미 유발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를 생성하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은 이 작품의 문제의식의 진지성 여부를 가늠하게 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심각한 악행이 등장하는 이 작품의 악인형 인물 및 악행이 서사에서 차지하는 의미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 본고는 <현몽쌍룡기>의 악인형 인물 및 그들의 악행을 분석하고, 작품에서 악행이 차지하는 의미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이본은 완질로는 유일본에 해당하는 한국학 중앙

은 <현몽쌍룡기> 연작의 범주를 <양문충의록>까지 넓혀 그 맥락 속에서 이 작품을 다루기도 하였다. 임치균, 『<현몽쌍룡기> 연구』, 『국어국문학』 113권, 국어국문학회, 1995; 조용호, 『삼대록소설 연구』, 계명문화사, 1996; 박일용, 『<현몽쌍룡기>의 창작 방법과 작가의식』, 『정신문화연구』 26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최수현, 『<현몽쌍룡기>에 나타난 친정/처가의 형상화 방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5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김문희, 『<현몽쌍룡기>의 서술문체론적 연구』, 『고소설연구』 23, 한국고소설학회, 2007; 허순우, 『<현몽쌍룡기> 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2009; 장시광, 『<현몽쌍룡기> 연작에 형상화된 여성수난담의 성격』, 『국어국문학』 152, 국어국문학회, 2009; 강미선, 『<현몽쌍룡기> 연작의 서사구조 연구』, 『어문연구』 통권 145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0.

연구원에 소장된 18권 18책의 『현몽쌍룡기』이며, 이를 현대어역한 소명출판사 본 『현몽쌍룡기 역주』⁷⁾를 참고할 것이다.

2. <현몽쌍룡기>의 악인형 인물과 악행의 특징

<현몽쌍룡기>의 주인공은 조부의 쌍둥이 형제인 조무와 조성이다. 이 형제는 서로 상반된 성격을 지녔으나 유교적 기준으로 볼 때 둘 다 뛰어난 자질을 갖춘 훌륭한 인물이다. 조부의 가문 구성원 중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인물이 없으므로⁸⁾ 이 작품의 갈등은 혼인을 통해 새롭게 영입된 정소저 및 양소저를 둘러싸고 전개된다. 이 작품에서 비중 있는 악인인 양세⁹⁾ 및 박씨와 박수관은 이 두 여성의 친정 쪽 인물로, 양세는 양소저의 오라비이며 박씨는 정소저의 새어머니이고, 박수관은 박씨의 조카이다. 그런데 이들은 단지 주동인물과 대립하면서 서사적 갈등을 만드는 수준에서의 악행을 도모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위 강상의 윤리를 범하는 수준의 악행까지도 서슴지 않고 저지른다. 두 처가는 서술자 및 조

7) 『현몽쌍룡기 역주』는 한국학 중앙연구원 소장본을 대상으로 한 현대어역본이며, 전 3권으로 되어 있다. 현대어역본은 2010년 소명출판에서 나온 김문희(역), 『현몽쌍룡기 역주 1』, 김문희(역), 『현몽쌍룡기 역주 2』, 김문희, 조용호, 장시광(공역), 『현몽쌍룡기 역주 3』이다. 앞으로 본고에서 인용하는 현대어역은 이 번역본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번역자 및 현대어역본의 권수와 면수 표시 없이 현대어역본에 표기된 한국학 중앙연구원 소장본 <현몽쌍룡기>의 권수 및 면수만 표시하도록 한다.

8) 딸 조주혜는 유학사의 부인이 되었는데 남편이 청주 기생을 가까이하자 식음을 전폐하고 머리 싸매고 누워 투기를 부렸다. 그러나 이 투기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는다. <현몽쌍룡기>, 15권, 46-47면. 이후 작품 내용 각주는 제목은 생략한 채 권수와 면수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9) 이 인물의 이름은 2권에서는 ‘양계’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4권에서부터는 ‘양세’로 표기되어 있어서 이름의 혼동이 있다. 그런데 4권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양세’로 표기하고 있으므로 ‘양세’를 선택하기로 한다.

부 구성원들에 의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술 취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부림을 하거나 혹은 칼을 맞은 아버지가 곧장 아들을 의심하는 장면이 연출되는 곳이기도 하다.

<현몽쌍룡기>의 기본 서사는 꿈에서 지시한 쌍둥이 자식들의 옥환(玉環) 인연을 맺어주는 내용이다. 결국 옥환 인연에 따라 쌍둥이 형인 조무는 정세추의 딸인 정채임을, 조성은 양임의 딸인 양옥설을 부인으로 맞는데, 두 소저의 경우 혼인하기 전까지의 혼사 장애는 물론 혼인한 후에도 계속되는 정절 모해에, 친정과 연루된 악행이 반역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작품 내내 편안한 날이 드물다¹⁰⁾. 남성 인물들이 겪는 어려움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아버지의 형벌이거나 혹은 자신들이 자원한 출전(出戰)이거나 아니면 정치적 관계에서 비롯한 지방관 파견 등으로, 이는 굳이 악인으로 인한 고난은 아니다. 이에 비해 두 소저의 고난은 소저 자신들의 행동에서 비롯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악인들의 음모로 인해 겪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박씨, 박수관, 양세 등의 악인은 그녀들의 고난담을 만들기 위한 서사적 인과관계를 제공하는 원천이 된다. <현몽쌍룡기>에는 박씨, 박수관, 양세와 더불어 악행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악인들이 더 있는데 바로 강후신과 차평자이다. 이 둘은 원래 양세의 문객이었으나 후에는 박수관과도 친밀해져 양소저는 물론 정소저의 모해 및 초왕과의 역모에까지도 가담하는 인물들이다. 그 밖의 악인형 인물로는 박귀비¹¹⁾의 딸 금선공주를 들 수 있는데, 그녀는 조무의 둘째부인이 되었다¹²⁾. 이상 열거된 인물들이 <현몽쌍룡기> 서사의 주된 갈등을 만들

10) 조무와 조성의 어려움은 일회적인 성격인 데 비해 두 소저의 고난은 작품의 시작부터 거의 마지막 단계인 15권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전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악인들의 정치가 끝난 후 친정을 보살펴야 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조부 며느리로서 받는 제약음이 있어 두 소저의 상황은 편치만은 않다.

11) 박귀비는 박수관의 고모이다.

어 내는 악인형 인물들이다. 이 장에서는 <현몽쌍룡기>에 등장하는 악인형 인물과 악행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1) 악인형 인물에 대한 서술적 특징

국문장편소설은 방대한 서사 분량으로 인해 풍부한 묘사와 구체적인 장면화의 기법 등 다양한 보여주기 서술 방식을 동원하여 서사의 짜임함을 살려가는 장르이다. 인물에 대한 세세한 묘사나 그때그때 반응하는 인물들의 감정 묘사 혹은 작은 동작 하나까지도 서술하여 섬세한 감정 상태까지도 표현해 내는 이 하위 장르의 서술적 특징은 고전소설의 여타 하위 장르들에 속하는 작품들과는 차별화된 서사 세계를 보여준다. <현몽쌍룡기> 역시 주동인물에 해당하는 조무와 조성, 그리고 각자의 배우자인 정소저와 양소저의 외양 묘사는 매우 구체적이며 자세하다. 이 인물들의 외양은 서사의 다양한 국면에서 꽤 긴 분량으로 혹은 단정적인 언술로 반복 확인되곤 한다. 이에 비해 악인형 인물의 외양에 대해서는 별다른 묘사를 하지 않아 그 인물들의 외양을 시각화하기 어렵다. 악인형 인물 중 금선공주¹³⁾와 박수관¹⁴⁾ 두 인물의 경우에는 외양 묘사가 있는데 이 역시 국

12) 그 자신이 본격적인 악인형 인물은 아니나 악인형 인물들의 악행에 관련되는 중요 인물들이 있다. 정소저의 아버지인 정공과 초왕이 그들이다. 정공은 자기 집안에서 아내 박씨의 악행이 실현되도록 방조하는 역할을 하며 초왕은 양세, 박수관 무리와 얽히면서 반역을 도모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13) ‘공주는 능라비단으로 온 몸을 치장하여 눈이 어지럽고 황홀하여 자세히 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그러나 잠깐 살펴보니 세 가지 빛깔의 복숭아꽃이 봄비를 머금은 듯하고 해당화가 아침 이슬을 떨어뜨린 듯 아리답고 고운 태도가 평범한 사람들의 눈을 황홀하게 하였다. 많은 손님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칭찬하고 축하하였다. 조공의 맑고 한가로움과 부인의 단정하고 정중함으로 생각해 볼 때 조금도 기쁜 마음이 없고 공주의 맑은 눈에 음란하고 잡스러운 빛이 섞이고 가는 눈썹에는 살기가 등등한 것을 불행하게 여겼다.’ 4권, 91-92면.

14) ‘수관의 외모는 아름답기가 관옥 같고 풍채는 버드나무 같았다.’ 5권, 126면. 또 7권에

문장편소설에서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는 관습에 비하면 매우 소략한 서술¹⁵⁾이다. 악인형 인물들의 감정 역시 상세하게 묘사되지는 않으며 대신 성이 났다든지 분노했다든지 하는 간단한 언급은 빈번하게 등장한다. <현몽쌍룡기>에서 악인형 인물이 차지하는 서사적 비중은 매우 크다¹⁶⁾. 그런데 <현몽쌍룡기>의 서술자가 악인형 인물을 그린 방식을 보면 악인형 인물 자체를 형상화하는 데는 별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악인형 인물들은 등장할 때부터 부정적인 인물이었던 것으로 그려지거나 아니면 그 인물의 과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악행에 가담하는 것으로 등장한다. 과거 행적에 대해 언급된 인물로는 양세¹⁷⁾나 박수관¹⁸⁾ 정도를 들 수 있는데 이 역시 그들이 이전부터 악한 성품을 지닌 인물이었음을 보여주는 설명적 서술이다. 이렇게 애초에 악했던 인물들이 자신들의 욕망과 상황에 의해 더욱 큰 악행으로 치달다가 역모를 일으켜 사형 당하는 과국을 맞이하는 것이다. 즉 이 작품에 등장하는 악인형 인물들은 서사에 등장할 때부터 악한 인물이었으며 개과천선과 같은 성격

는 여장한 박수관을 가리켜 ‘수염 자국이 없었고 풍만한 용모와 점잖고 의젓한 거동이 완전한 여자’라고 한 서술이 보인다.

- 15) 박씨의 경우도 ‘세상에 비교할 곳 없는 미인’이라는 설명은 있으나 이 미모가 묘사되어 있지는 않다.
- 16) 앞서서도 언급했듯 이 작품의 주된 서사적 갈등은 두 소저를 모함하는 악인형 인물의 추동에 의한 것이다. 이 악인형 인물들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현몽쌍룡기>는 서사의 대부분을 잃게 된다.
- 17) ‘첫째 아들 양세는 양학사의 아름다움과 조공주의 빼어난 단정함을 닮지 않았다. 학문은 천지(天地) 두 자를 모르고 말은 변변한 인사도 하지 못하나 성품은 포악하고 사나우며 온 뱃속에 쌓인 것은 흉악하고 독한 생각뿐이었다. 양학사가 크게 불쾌해하며 아들을 보기만 하면 눈썹을 찡그리고 소리 없이 길게 탄식하며 부자의 천륜을 없애지 못하나 아들이 있는 것이 도리어 불행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2권, 114-115면.
- 18) ‘박수관이라는 자는 여사 태우의 자식이다. 여색을 좋아하는 탕자로 무퇴하고 인정이 아주 없고 각박하여 그 처를 쳐 죽이고 강도의 괴수가 되어 날마다 나가 인명을 살해하고 재물과 보물을 노략질하였다.’ 2권, 41-42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평면적 인물에 속함을 알 수 있다¹⁹⁾.

2) 악인형 인물들과 악행의 종류

이 작품에서 악인형 인물은 사건, 즉 악행을 중심으로 구체화된다. 인물에 대한 묘사는 빈약하나 사건 서술은 자세하여 악행 자체를 모의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은 행위들이 단계별로 상세하게 서술된다. 그 과정에는 대화도 삽입되는데, 이는 발화하는 인물의 개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²⁰⁾ 그들의 악행 모의 과정을 장면화하는 데 기여한다. 이 작품의 갈등은 박씨와 양세에 의해 배태되며, 박씨와 양세는 주로 상속에 대한 욕심 때문에 각기 전처의 자식과 자기 누이동생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결심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 주변 인물들이 가세하여 다양한 악행들이 펼쳐지면서 서사가 전개된다²¹⁾. 생래적으로 악한 성품을 타고난 것처럼 설정되는 <현몽쌍룡기>의 악인형 인물들이 욕망을 발현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과정은 곧 윤리적 차원에서의 악행이거나 아니면 범죄의 수준에

19) 악인형 인물의 외양 묘사에 대해 주목한 것은 인물에 대한 자세한 외양 묘사가 국문 장편소설의 장르상 서술 특징의 하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논의의 목표는 <현몽쌍룡기>에 나타나는 악인형 인물들의 악행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국문장편소설에서는 비중 있는 인물들에 대한 외양 묘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몽쌍룡기>에 등장하는 악인형 인물들의 경우는 어떠한지를 검토하기 위함이었으며, 자세한 외양 묘사 유무가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고 여겨서는 아니다.

20) 왜냐하면 그들의 대화 내용은 대개 음모를 꾸미고 실행 방법을 의논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인물의 개성에 따라 차별화된 발언을 하는 악인형 인물은 등장하지는 않으며 대화 당사자들은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욕망을 달성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도모할 뿐이다.

21) 이 작품의 남성 주동인물인 조무와 조성은 주로 자기 부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모해에 대해 반응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지방관의 임무나 출전 등은 매 사건마다 완결된 구조로 해결된다. 즉 <현몽쌍룡기>의 주동인물들은 악인형 인물들의 다양한 도전에 대해 수동적인 입장에 서게 되는데 결과는 주동인물들의 악인형 인물 징치로 귀결된다.

해당하는 악행이 된다. 이 작품의 서술자가 선택하는 악행들을 해당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여성 악인형 인물의 악행

우선 박씨는 정세추의 둘째부인이다. 박씨가 투기가 심하고 악하다는 사실은 그 주변 사람이면 이미 알 만한 사실인 것처럼 보이는데²²⁾ 남편인 정세추는 그녀가 매우 미인인 데다가 매사에 능숙하게 일처리를 잘 하자 박씨를 전폭적으로 신임한다. 그런데 아들을 못 낳은 박씨는 정씨 집안의 전 재산이 석씨의 두 자녀에게 돌아가게 될까봐 전전공공한다. 이후 그녀는 정소저를 정부로 데려와 천한 일을 시키고, 푸성귀만 먹이며 박대한다. 이런 대접이 문제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는 여타의 소설에서도 볼 수 있는 정도의 악행이다. 박씨의 악행이 급물살을 타는 것은 그녀가 소저를 매우 때려 소저가 피가 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가 된 때에 하필 정공이 들어오면서부터이다. 박씨는 정공에게 소저가 자신이 석부인을 독살했다면서 칼로 자신을 찌르려 했고 분을 못 이겨 소저 스스로 자해를 했다²³⁾는 무고를 한다. 그리고 연이어 정소저가 주술을 걸어 자신을 병들게 하여 죽이려 했다며 소저를 어미를 죽이려 한 강상의 죄인²⁴⁾으로 몰아갔다²⁵⁾. 또 자신이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 정소저를 자기 조카 박수관에

22) <현몽쌍룡기> 1권 82면에 보면 석씨 집안에 시집간 조부의 딸이 조부의 신부감으로 정소저를 추천하는 장면이 나온다. 박씨의 성품을 잘 아는 석부인은 죽으면서 자신의 딸과 아들을 친정에 맡겼고, 박씨가 매우 투악한 성품을 지녔다는 평가는 석씨 집안으로 시집간 조소저가 언급한 것이다.

23) 이 내용은 <현몽쌍룡기> 2권 1면, 2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24) 이 장면을 앞뒤로 하여 실제로 작품에서도 ‘강상’을 운위하거나 ‘강상의 변고, 강상의 죄인’이라는 표현이 연이어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25) 이때 정소저는 이미 조부와 혼약이 이루어진 상태였는데 박씨는 정소저를 자신의 조카 박수관에게 시집보내는 게 낫다며 정공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다. 부모를 죽이려

게 시집보내려 하여 정소저의 정절을 위협하고, 작품 전반에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사용한다. 자신이 물질적 욕망이 큰 만큼 다른 이들을 회유할 때에도 물질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정씨 가문의 유산을 상속하기 위해 거짓 임신 연기를 하고 남자 아이를 사오며, 눈엣가시인 석부인 소생 아들 정천희를 죽이라고 사주를 하기도 한다.

또 다른 여성 악인인 금선공주의 경우는 악행의 동기가 다르다. 그녀는 남편 조무에 대한 성적 욕망,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이 강한 여성이다. 그러나 정소저로 인해 순편하게 조무의 사랑을 얻는 일이 불가능해 보이자 그녀는 조무에게 독을 먹여 혼미하게 한 후 운우지락을 즐기고, 조무 주변의 창기들을 죽인다²⁶⁾. 그런가 하면 차평자에게 정소저와 양소저의 아들인 유현과 기현의 독살을 사주하고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조성 역시 음해한다. 금선공주는 어머니로서도 냉정한 면모를 보이는데 자신이 못 생긴 딸을 낳자 이런 자식은 필요가 없다며 잘 생긴 남자 아이와 바꿔치기한 후 딸은 전혀 돌아보지를 않는다.

(2) 남성 악인형 인물의 악행

박수관의 경우는 아내를 죽였으며 도둑질을 하여 수만 냥을 모은 호색한으로 소개된다²⁷⁾. 그는 이미 살인과 강도, 도둑질을 저지른 죄인인데, 박씨로 인해 정소저를 욕망했다가 실패²⁸⁾한 후 계속 그녀를 얻고자 시도

했다는 강상의 죄인이 된 정소저는 혼약까지 파기하게 되자 효와 절개라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살충동도 극복하고 납복하고 도망을 결심하게 된다.

26) 금선공주는 8권에서 창기 홍앵의 귀를 베고 태형을 가해 죽였고 9권에서는 조무가 가까이 하던 기생을 찔러 죽였다.

27) 각주 18) 참고.

28) 납복을 하고 도망을 시도했던 정소저는 박수관의 추적을 피해 강물에 투신했다가 마

한다. 그러나 친절으로 돌아가게 된 정소저가 꾀를 내어 실성한 채하자 이를 본 박수관은 양세에게 ‘정소저를 줄 테니 자신에게 양소저를 달라’며 협상을 제안한다. 양소저를 놓고 강후신과 경쟁관계가 된 그는 여장을 하고 양소저에게 접근하여 납치를 시도한다²⁹⁾. 그는 강후신에게 정소저의 아들을 잡아오라는 명을 내리기도 하고 정천희에 대한 살인을 교사하였으며 마지막에는 초왕와 더불어 반역을 시도한다.

양세는 양임의 외아들이었는데 공부도, 성품도 형편없어 아버지의 신임을 얻지 못한 아들이었다. 그런데 양임은 사위 조성이 훌륭한 것을 보고는 딸 양소저에게 ‘아들이 없었으면 외손봉사하고 싶다’는 말을 하였고 우연히 이 말을 듣게 된 양세는 자기 집 재산이 모두 양소저에게 돌아가게 될까 걱정되어 양소저를 모해한다³⁰⁾. 이 모해의 내용은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여러 차례에 걸친 정절 모해이며 다른 하나는 누이인 양소저가 시부모와 남편의 목숨을 끊는 부적을 쓴다는 것이었다. 양세 역시 정소저를 원하게 된다³¹⁾. 그는 박수관에게 500냥을 주고 정소저가 났다는 수레를 탈취하였으며³²⁾, 그런가 하면 차평자에게 양소저의 아들을 잡아오라고도 명령한다. 또 뇌물을 많이 써서 벼슬을 얻었는데, 아버지가 표를 올려 이에 반대하자 술에 취한 그는 칼로 아버지를 거의 찌를 듯한 기세를 보인다. 이는 친부 살인까지도 연상시키는 장면으로, 양세야말로 강상의 윤리를 범하였다. 이에 양임은 가문을 지키기 위해 아들을 독살시키려

침 그곳을 지나가던 조무 형제가 탄 배에 의해 구출되고 우여곡절 끝에 조무와 혼인하게 된다.

29) 물론 그가 납치한 인물은 정소저가 아니라 그녀의 시비인 섬랑이었다. 훗날 섬랑조차 계략을 써서 우물에 투신한 것처럼 꾸며 박수관에게서 도망한다.

30) 사위 조성에 대한 아버지 양임의 전폭적인 신임이 이 같은 불안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31) 6권 41면과 7권 33면에 정소저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양세의 모습이 나온다.

32) 이 수레에는 정소저 대신 시비 벽란이 타고 있었다.

하다가 양세가 날뛰어 태형 70여 대로 다스린다³³⁾. 양세의 친부살해 혐의는 그 다음에는 뚜렷한 친부살해 교사로 강화된다. 양세가 시주하여 양소저를 괴롭혔다는 사실이 발각나게 되자 차평자와 강후신은 양세에게 양임을 죽여 없애고 초왕궁에 가서 숨자고 제의한다. 양세는 이에 ‘흔쾌히’ 동의하며 차평자에게 보검을 내주었다.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자객을 고용하는 셈이다. 이때 달구경을 하던 양임이 이를 듣고 뛰어 들어가 저지하다가 아들과 육탄전을 벌이게 되고 양세는 양임을 치고 달아났다³⁴⁾. 그 후 양세 역시 초왕과 더불어 반역을 일으킨다.

강후신과 차평자는 양세의 휘하로, 서사의 구비마다 동시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고에서도 함께 다루기로 한다. 강후신과 차평자는 첫 등장 장면에서도 둘이 함께 나오는데, 이들은 ‘양세와 더불어 몸은 둘이나 마음은 하나같은 사이’로, 이들이 한 일은 남의 처자를 겁탈하는 것이었다³⁵⁾. 먼저 강후신의 경우를 보자. 양세의 문객이었던 강후신은 박수관이 정소저와 양소저를 다 죽게 했다고 생각하여 훗날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박수관 집에 불을 질러 그를 제거하고자 한다. 그러나 박수관은 무사했고 그 후 박씨와 박수관이 강후신에게 상당량의 금을 주면서 정천회의 살인을 교사하자 언제 그랬느냐는 듯 자객 노릇을 한다. 그 과정에서 엉뚱하게도 정천회의 서동을 죽이고 방에서 나오다 정공과 마주치게 되자 그는 일고의 망설

33) 양세가 아버지에게 칼을 휘둘러 아버지에 의해 독약을 받는 내용은 9권 46면부터 55면까지 서술되어 있다.

34) 양세의 친부살해 교사는 12권 15면에서 20면까지 서술되어 있다. 아들에게 맞은 후 의기를 상실한 양임의 모습에 대한 묘사는 인물에 대한 동정심까지 유발할 정도이다. ‘양공은 난간머리에 거꾸러진 채 기운이 막혀 있었다. 조부인이 다가가보니 몸은 상하지 않았으나 상투를 풀어헤친 해 거두지 않고 눈물이 얼굴에 가득할 뿐이었다.’ 12권, 20면.

35) 두 인물 중 강후신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강후신은 문장이 넉넉하고 풍채가 신선 같고 담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매우 사납고 날쌔다.’ 3권 21면.

임 없이 칼로 정공을 찔렀다³⁶). 부녀자 성폭행, 방화, 살인 및 살인미수, 상해 등을 일삼던 그 역시 마지막에는 초왕의 반역에 가담하였다.

차평자의 경우를 보면, 그는 강후신과는 달리 정체가 모호하다. 그의 과거나 생김새에 대한 언급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차평자는 변신술 같은 도술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데 금선공주의 사주를 받고는 나비로 변해 조씨 집안에 들어가 유현, 기현의 독살을 시도했으며, 조성을 음해할 때에도 나비가 되어 궁궐에 잠입하여 개용단을 이용해 조성으로 변한 후 천자에게 다가가 시해를 도모했다³⁷). 도망할 때에는 제비와 같은 새로 변신을 하는가 하면 꽃과 나비로 변해 조부로 가서 양소저를 모해하기도 한다³⁸). 그 역시 부녀자 성폭행, 살인, 누명 씌우기 등의 악행을 자행하다가 초왕의 역모에 가담하여 죽임을 당한다.

3) 악행의 특징

기본적으로 남녀 주동인물들의 혼사 장애나 가족 갈등이 서사의 주된 흐름을 이루는 국문장편소설에는 갈등을 야기하는 반동인물이 구사하는 다양한 악행들이 등장하며, 그 수위 또한 단순 모함에서부터 성폭행, 유괴, 독살, 척살 등 심각한 범죄들까지도 등장한다. 앞에서 살펴봤듯 <현몽쌍룡기>에도 사기, 유괴, 상해, 방화, 살인 등의 악행이 동원된다. 악행의 종류만을 보았을 때에는 <현몽쌍룡기>의 악행이 그렇게 유대를 것도 없어 보인다. 그런데 악행의 내용을 보면 이 작품의 악행이 여타의 작품들

36) 박수관의 집에 불을 내는 사건은 8권에서, 대가를 받고 살인 및 상해를 저지르는 이야기는 12권에서 나온다.

37) 유현, 기현의 독살 시도는 8권에, 천자 시해 시도는 10권에 포함되어 있다.

38) 양소저를 모해하는 사건은 11권에 나오는데 이 역시 양소저에게 재산을 빼앗길까 노심초사하던 양세의 사주로 인한 것이었다.

에 비해 더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설정임을 알 수 있다.

<현몽쌍룡기>에 등장하는 악인들은 기본적으로 포악한 성품을 지닌 데에 더하여 성적 욕망이나 물질에 대한 욕망이 강하다³⁹⁾. 이 중 성적 욕망은 남녀 성별에 따라 서술자의 태도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 여성 인물의 경우에는 성적 욕망 자체가 악인의 표지이지만 남성 인물의 경우에는 성적 욕망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⁴⁰⁾. 남성인물들은 성적 욕망에 자유로운데, 악인형 인물들의 성적 욕망은 성폭행이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⁴¹⁾과 같이 범죄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현몽쌍룡기>는 물론 여타의 국문장편소설에서도 이미 혼인한 부인의 정절을 모해하는 경우는 있다. 그런데 <현몽쌍룡기>의 남성 악인형 인물들이 더욱 방종하게 보이는 까닭은 그들이 양소저와 정소저를 대하는 방식에서 비롯한다.

이 작품에서 정소저와 양소저의 섹슈얼리티는 친정에서도, 심지어 시집인 조부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다. 또 남성악인형 인물들은 이 두 소저를 놓고 상황에 따라 짝을 바꿔가며 정절 모해를 시도한다. 8권을 보면 양세와 박수관이 서로 그간의 악행을 다 열거하면서 다투는 장면이 나온다. 이때 그들의 대화를 보면 ‘처음에 정소저를 박수관이 취하려 하다가 누이 양소저를 박수관에게 허락하였다니 박수관이 정소저를 나

39) 앞에서 열거한 악인형 인물 중 박씨를 제외한 다른 인물들은 모두 강한 성적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40) 예를 들어 조무 또한 성적 욕망이 강한 인물로 그려진다. 앵혈을 지우기 위해 수행을 취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공무로 타지에 가서 보게 된 연소저에게 반하여 불고이취하는 대담함을 보이고 있다. <조씨삼대록>을 보면 조무에게는 여러 명의 기첩이 있다. 조무는 자신이 원하는 여성에 대해 욕망을 통제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 같은 조무의 성적 욕망이 그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누가 되지는 않는다.

41) 박수관은 양소저가 우물에 투신자살한 것으로 알고, 양세는 정소저가 상황에 몰려 스스로 목을 베어 죽은 것으로 안다. 그런데 실은 양소저는 섬량이 대신한 것이고 정소저는 벽란이 대신한 것이며, 이들 시비들도 다 도망에 성공하여 죽지는 않았다.

에게 천거⁴²⁾’하였다는 양세의 발화와, ‘양세가 누이를 해치려고 강후신에게 주려고 하기에 박수관 자신에게 달라고 했더니 허락’했다면서 그런데 ‘양소저가 박수관 자신을 속이고 죽었으니 내가 정소저를 가질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⁴³⁾ 정소저를 양세에게 주었더니 양세 네가 그 중매 대가로 5백 냥을 준 것⁴⁴⁾’이라고 주장하는 박수관의 발화가 나온다. 이 대화를 보면 박수관은 필요에 따라 정소저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고 양세는 심지어 자기 누이인 양소저를 강후신, 박수관 등에게 넘겨주려 하다가 마지막에는 초왕과 반역을 꾀하면서 누이를 초왕비로 추천하고 있다. 정소저와 양소저는 이 작품에서 여성인물로는 가장 긍정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 악인들에 의해 이렇게 성적으로 대상화되고 사물화되어 그들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 성적 욕망을 사건화하는 방식에는 다양한 층위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현몽쌍룡기>에 나타나는 남성악인들의 성적 욕망이 발현되는 양상과 여성주동인물들이 정절을 위협 당하는 양상을 보면 상황을 극단으로 치닫게 하는 설정이 보일 뿐, 일말의 주저함이나 회의 혹은 그녀들의 인격을 고려한 고민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현몽쌍룡기>의 악행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아마도 양세가 자신의 친부 양임에게 칼을 휘두르고 또 친부 살해를 교사한 사건일 것이다. 이는 당대 조정에서 천자의 신임을 받는 신하였던 양임과 그의 아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들 부자의 사건은 유교적 가르침에 의해 충분히 교화될 기회를 갖지 못한 계층이 자신의 친부에게 상해를 가한 것⁴⁵⁾

42) 8권 7면.

43) 그렇게 하지 않은 실제 이유는 이때 정소저가 거짓으로 미친 척하고 있었기 때문에 박수관은 양세에게 실성한 정소저를 넘긴 것이었다.

44) 8권 22면.

45) 『조선왕조실록』에도 드물지만 자식이 아버지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혹은 살해한 사건

과는 궤를 달리한다. 효가 백행의 근본이라고 강조하던 조선시대 소설에서 친부시해를 연상시키는 이 같은 장면이 설정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칼부림은 아버지가 아들의 벼슬을 박탈해 달라는 상소를 올렸기 때문에 일어났다. 평소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냉정한 평가와 불신임을 잘 알고 있었던 양세는 벼슬을 하기 위해 뇌물을 썼는데 아버지가 표문을 올려 아들의 벼슬이 박탈당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분노한 양세는 술에 취한 채 칼을 들고 아버지를 향해 갔다. 술 취한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칼을 휘둘러 위협하거나 혹은 자신의 보검을 내주면서 아버지를 죽여 없애달라는 사주를 하는 것은 고전소설의 악행으로서는 극단적인 범주에 속한다 하겠다.

그런데 이 작품의 악행 중에는 친부시해의 또 다른 변주를 연상시키는 사건이 있다. 강후신이 정세추를 칼로 내리친 사건이다. 원래 강후신은 정천희를 죽이려 했는데 정천희가 미리 피신한 것을 몰랐기에 대신 엉뚱한 서동을 벤다. 그리고 정천희의 방에서 나오다가 정세추를 마주치게 됐는데 순간 그는 들고 있던 칼로 정세추를 공격했다. 그런데 주색잡기로 판단력이 흐려진 정세추는 칼로 자기를 내리친 자가 바로 자기 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아들 정천희는 순임금에 버금가는 효자로, 친부를 살해하려 한 죄인 누명을 쓰게 됐어도 자신을 고발한 부모를 위해 묵묵히 죽으려 하는 인물이다. 강후신의 자객 장면은 그런 정천희가 아버지 정세추에게 강상의 윤리를 범한 아들로 인식되는 장면이다. 그런가 하면 정소저의 경우도 박씨에 의해 강상 윤리를 범한 죄인이라는 누명을 쓰게 된다.

들이 보고되어 있다. 이같이 존속상해나 살해에 해당하는 사건은 강상의 윤리에 저촉되는 가장 중한 범죄이기에 추국을 통해 중형으로 다스렸다. 세종은 경연 때 진주 사람 김화가 자기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보고를 듣고 자책하여 신하들을 소집, 백성을 깨우쳐 풍속을 후하게 이끌 방법을 논의하게 하였고 그 결과 『삼강행실도』 같은 교화서가 나오게 된다. <세종실록> 41권 10년 9월 27일; 42권 10년 10월 3일.

박씨는 남편 정세추에게 정소저가 계모인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무고하였다. 전자는 오해이고 후자는 모함이기는 하나 이 두 경우도 의견상으로는 자식이 부모를 죽이려 했다는 악행의 외피를 얻었다. 강상의 윤리, 천륜은 부모와 자식 간에 맺어지는 쌍방적인 성격의 윤리이다. 양세의 경우처럼 아들이 아버지에게 직접 칼을 들고 위협을 가한 악행도 충격적이지만 자기를 찌른 이가 아들일 것이라고 단박에 의심하는 아버지 정세추의 모습 또한 익숙하지 않은 설정이다.

이처럼 <현몽쌍룡기>의 악행은 작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⁴⁶⁾ 악행을 구성하는 내용 측면에서도 극단적인 설정을 하는 사건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적 욕망의 경우에는 상대방 여성을 물화(物化)하는 방향으로, 부모 자식 간에서 벌어지는 갈등인 경우에는 강상의 윤리를 범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여성을 극단적으로 대상화하고 천륜에 대해 문제적 상황을 만들고 있는데 다음 장에서는 이 같은 악행의 설정이 전체 서사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마무리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3. <현몽쌍룡기>에 나타난 악행의 의미

1) 훼손된 부모 자식 관계

악인형 인물들끼리도 의리가 있을 수 있는데⁴⁷⁾, <현몽쌍룡기>의 악인형 인물들은 필요에 따라 서로 닳을 하거나 이합집산한다. 악인형 인물들은 남녀 모두 물질적 욕망이 강하며, 갖고 싶은 것을 손에 넣으려 하거나

46) 전술했듯 <현몽쌍룡기> 18권 중 15권까지의 서사가 악인들의 반동 행위를 기반으로 하여 전개된다.

47) 예를 들어, <임씨삼대록>의 악인형 인물들은 힘든 경우에도 서로를 챙기는 결속력이 강하며 서로 지기 관계로 간주하기도 한다.

악행을 도모할 때에는 적극적인 뇌물 공세를 펼친다. 박수관, 강후신, 차평자들은 돈이 되는 일이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양세와 박씨에게 중요한 것은 상속이다. 양세는 양부의 제사가 외손봉사로 넘겨지는 것을 좌시할 수 없었는데, 제사권 상속은 곧 재산권 상속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때 상속은 곧 가문의 재산에 대한 욕망과도 관련되는 것이다. 박씨의 경우는 전처 자식에게 정부의 유산이 상속될 것을 경계하여 거짓 임신을 통해서라도 자기가 그 유산을 차지하고자 하였다. 양세와 박씨가 가부장과 맺는 관계는 상속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건드려지는 것은 부모 자식 관계이다.

유교 사회에서 부모 자식 관계는 천륜으로, 삼강(三綱)의 하나로 강조된다. 효는 ‘백행(百行)의 근본’이므로 부자간의 윤리는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리이며 이는 특히 자식 입장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 천륜은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자애와 자식이 부모를 받드는 효로 구체화된다⁴⁸⁾. 그런데 양세의 경우는 이 천륜의 금기를 넘어 아버지에게 칼을 휘둘렀다. 양세에게 아버지는 천륜이라는 금기의 존재이자 상속을 방해하는 권력자였다. 양임은 딸에게는 매우 자애로웠지만⁴⁹⁾ 될 성 불러 보이지 않는 아들은 오히려 있는 것이 불행⁵⁰⁾이라고 여길 정도였다. 그러나 어찌 되

48) 이 작품에서는 주로 자식이 부모에게 해를 가하는 주체로 거론되는데 고전소설 중에는 부모가 친자식을 살해하는 설정도 있다. 서경희, 『가정소설에 나타난 친자 살해 연구』, 『국어국문학』154, 국어국문학회, 2010 참고. 그런데 조선조 현실에서는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매를 쳐서 가르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자식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어느 정도의 죄로 다스려야 할지 고민하였다. 이에 비해 자식이 부모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는 강상에 관계되는 중요한 옥사로 간주하여 중죄를 내렸다. 부모가 자식을 상해했을 때 죄에 대해 논의한 기록으로는 <연산군일기> 4권, 3월 8일; 자식이 부모를 상해한 경우는 <선조실록> 10권, 5월 12일.

49) 2권, 116면.

50) 2권, 114-115면.

있든 아버지에게 칼을 휘두르는 아들은 오늘날의 윤리 기준으로 볼 때도 여전히 충격적이다.

자식의 패륜은 물론 문제적이지만 이 작품에서 의아한 것은 자식의 태도만이 아니다. 자식을 대하는 부모의 시선 역시 보편적인 기대를 저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정세추이다. 그는 칼을 맞자마자 자신을 내리친 이는 아들일 것으로 짐작한다. 그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 자객(강후신)이 아들 방에서 나왔다는 사실 한 가지이다⁵¹⁾. 그러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 아들이 자기를 찌른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 부자 관계는 이미 천륜이 지켜질 것이란 최소한의 믿음조차도 깨어진 상태임을 반증한다. 부인 박씨는 바로 그 틈을 파고든 것이다. 그런데 실은 그 아들은 지극한 효자였기에 결국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 최소한의 믿음조차도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이 대조를 이룬다. 양임의 경우는 최소한의 천륜은 인정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아들 양세가 칼을 휘두르자 아들을 독살하기로 한다. 불초자를 살려두었다가 남의 손에 죽게 된다면 조상에게 끼치는 욕이 가볍지 않을 것⁵²⁾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강상 윤리를 범할 수 있는 아들은 가문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직접 제거하기로 한 것이다. 가문과 양세를 저울질했을 때 아들을 향해 ‘차마 못하는 마음[不忍之性]’은 작동하지 않았다. 못난 아들은 가문을 유지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라는 그의 판단이 우선했기 때문이다. 아들은 ‘자식’이어서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최소한 가문에 누를 끼치지 않아야 비로소 의미 있는 자식이 되는 것이었다⁵³⁾. 양임에게는 가문을 위한 결단

51) 이 생각은 나중에 부인 박씨의 상소 설득으로 더욱 강화된다.

52) 9권, 50면.

53) 양세의 아들 인광을 양임의 후계 삼는 일에는 사위 조성이 적극적으로 가담한다. 이러한 조처가 훗날 양세가 반역에 가담했을 때 가문의 부담을 더는 안전장치가 되고 있어 양임과 조성의 판단이 옳았다는 데 힘을 실어준다.

이라는 명분이 있었겠으나, 가문을 위한다는 명분이 자식에 대한 살인 결심까지도 정당화해 주기는 어렵다.

그런데 아들에 대해 어떤 아버지는 기능적인 판단을 한 반면, 어떤 자식은 부모에 대해 절대적인 효를 실천하는 사건을 그려 서로 대비를 이룬다. 정천희의 경우는 부모에 의해 아버지를 죽이려 한 범죄자로 조정에 고발까지 당해서 그 죄상이 공식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사실대로 말하면 결국 부모의 거짓말이 드러나게 된다며 죽기로 작정하였고, 정채임 역시 강상윤리를 범한 딸이 되었으니 죽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며 스스로 독을 구한다. 물론 양부와 정부라는 다른 가문 구성원들의 서사이기는 하나 이 작품에는 부모는 자식을 기능적으로 판단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대효(大孝)를 행하는 대조적인 장면이 서술되어 있다. 이는 이중적 의미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서술 태도로 해석 가능하다. 우선 일차적으로 부모의 경우와 자식의 경우에 각기 다른 선택을 보여준다는 점인데 이는 수직적 질서를 강조하는 서술 태도로 간주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가부장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은 가문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할 것이 없기에 가문 수호의 입장에서 볼 때 부모의 잘못을 덮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일 수 있다. 같은 가족 안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판단하는 잣대와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방식이 다른 것을 보여주는 이 작품의 서술자는 부모 자식 간의 수직적 질서와 가문 수호의 의지를 둘 다 만족시키는 방향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가 하면 자애의 측면에서 볼 때 어머니로서의 금선공주나 박씨도 결코 예사롭게 형상화되지 않았다. 금선공주는 조무와의 사이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무당이 딸이라고 하자 그 자리에서 잘 생긴 남자 아이와 맞바꿀 계획을 짜고⁵⁴⁾, 실행에 옮긴다. 금선공주는 추모인 딸에게 단 한

54) 7권, 104-106면.

번도 어머니로서의 자애를 보여주지 않는다⁵⁵⁾. 남편 조무를 만족시키기 위해 ‘잘 생긴 남아’를 찾는 금선공주에게 자식은 천륜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존재였다. 거짓임신을 시도한 박씨 또한 자식을 도구화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자식이 없는 박씨가 거짓임신을 한 것은 아기를 키워보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정씨 집안의 유산을 승계하기 위해서 박씨에게 필요한 것은 자식이 아니라 아들이었다. 박씨의 거짓임신은 어머니가 되고 싶은 모성적 본능에 의한 행동이 아니라 상속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욕망에 의해서였다. 물론 이 작품에 이런 부정적 어머니상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조숙의 부인 위씨나 정세추의 첫째부인 석씨, 양임의 부인 조씨 등은 모두 평범한 어머니들로 자애로울 터인데 이들은 서사 비중이 매우 적고, 정소저와 양소저는 자애로운 어머니로 설정되어 있지만 수난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어머니로 형상화될 기회가 별로 없었다. 이 작품에서 여성주동인물과 대칭을 이루며 서사적 비중이 큰 두 여성인물이 바로 금선공주와 박씨이다. 그런 그녀들에게서는 자식은 오로지 수단으로 그려져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현몽쌍룡기>의 서술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부자 관계라는 강상 윤리를 문제 삼고 있고, 그들의 악행에 대해 징치할 때에도 부모 자식 관계로 얽힌 범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매우 자세하게 장면화하고 있다. 소설에서 그 사회에서 금기시하는 선을 도발하는 경우는 해당 부분이 그 사회의 문제를 증후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강상 윤리에 저촉되는 <현몽쌍룡기>의 부자관계는 마치 이익 집단의 인간관계처럼 그려진다. 위에서 언급했듯 대순(大舜)의 사례는 부자관계라는 강상윤리를 재현하면서 모든 이해관계를 다 뛰어넘는, 심지어 자신의 목숨

55) 딸 후염은 매우 추모였는데 태어난 후 단 한 번도 어머니로부터의 돌봄을 입은 적이 없다.

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절대적 관계를 보여준다. 그런데 자식은 부모에게 대해 무조건적인 이해와 수용을 실천해야 미덕인 것으로 그려지는 데 비해 자식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그렇게 무조건적인 이해와 수용을 해야 하는 것으로 그려지지 않는다. 부모에게 자식은 천륜이기에, 가족이기에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이 가문의 이해관계에 잘 부합해야 비로소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즉 그런 존재여야 부모로서의 자애도 생긴다. 딸과 아들에 대한 태도가 전혀 다른 양임이 그 예이다⁵⁶⁾. 이에 비해 이 작품의 중심 가문인 조부의 경우에는 부모 자식 관계가 화목한 것으로 그려진다. 그런데 조부의 아들 조무와 조성은 애당초 가문을 유지하는 데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인물들로 설정되어 있다. 부자 관계로 인해 고민할 가능성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부 역시 아들이나 아버지 중 누군가가 문제를 저지른다면 어떤 식으로 처리했을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조부나 양부나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가문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패려한 행동을 한다면 남의 아들이라도 죽이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는 조숙의 대사⁵⁷⁾, 양세가 강상 윤리를 범하는 행동을 하자 천륜을 끊고 양세의 아들 인광으로 후사를 잇겠다는 상소를 올려 공식 화해 놓은 양임의 행동⁵⁸⁾은 가문에 위협이 될 만한 아들의 패륜에 대해

56)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양세의 캐릭터는 설득력이 있다. 태어날 때부터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부족한 인물이었던 양세는 아버지의 사랑과 신임을 얻지 못한다. 이러한 인정 결핍이 양세의 악행을 강화시키는 요소로 작동하였고 결국 강상의 윤리를 범하는 극단적인 악행을 초래하게 된다. 이에 비해 아버지 양임은 날 때부터 현숙했던 양옥설에게는 풍부한 자애를 보여주고 있다.

57) 1권, 66면. 조무가 임의로 수앵을 취하고 함께 지내는 것을 알게 된 조숙이 아들을 다스리며 한 말이다. 남의 자식이라도 죽이는 게 낫다고 생각할 지경이니 내 아들이니 너야말로 엄하게 다스리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58) 양임은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차평자에게 살인을 교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양씨 가문이 보전되지 못할 것을 염려하였다. 병이 낫자 그는 아들 양세와의 천륜을 끊고 손자 인광으로 자식을 삼겠다는 상소문의 초고를 사위 조성에게 쓰게 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가부장의 모습을 보인다. 순임금이 대순(大舜)인 것은 그가 치수(治水)를 잘 해서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수차례에 걸쳐 자신을 죽이려던 아버지에 대해 끝까지 효로 섬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유교 사회의 근간은 이처럼 효로 이념화된 부자 관계가 실천적 덕목으로 힘을 가지는 데서 마련된다. 주지하듯 소위 ‘백행의 근본인 효’는 부자관계에서 군신관계로 확대되는 수직적 질서를 공고하게 하는 데 동원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몽쌍룡기>의 악행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다양한 부자관계에서는 이렇게 이념적으로 이상화된 부자 관계가 심각하게 흔들려 있다⁵⁹⁾. <현몽쌍룡기>에서는 부모 자식 관계가 천륜으로 굳건히 이념화된 것으로 그려지지 않고⁶⁰⁾ 가문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의 방향을 선택하는 양상과 함께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가능하다는 인식이 드러난다.

2) 수단으로 소비되는 악행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작품의 악행은 당대 소설의 관습이나 윤리 규범에 비해 매우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설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친자의 허락을 얻자 사당에 고하고 손자를 친자로 삼아 조상의 제사를 잇게 하고는 친아들 양세는 아예 관계가 없는 것으로 하였다. 12권, 33-38면.

- 59) 그러나 <현몽쌍룡기>에서 강상윤리에 저촉되는 부자관계를 그린 것이 이 작품이 군신관계의 수직적 질서라는 중세적 질서에 균열을 가하고자 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읽히지는 않는다.
- 60) 국문장편소설에서 충격적인 부모 자식 관계를 보여주는 작품으로는 <소현성록>을 들 수 있다. 다른 작품에서도 가문 수호를 위해, 교육을 위해 자식을 죽일 수도 있다는 언급들이 나오기는 한다. 그런데 <소현성록>의 양부인은 가문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실절한 자신의 딸을 실제로 독살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는 어머니가 딸을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인데, 그러나 이 작품에서 가모장 양부인 개인의 감정적 훼손은 서술되지 않으며 가문 내 위상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는다. 양임의 손자 입후가 존폐의 위기에 선 가문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양부인의 딸 독살은 가문의 명예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설정은 수직적 질서와 기득권 세력의 유지 강화라는 현실과 맞물리는 측면도 있다. 실제로 19세기 조선은 몇몇 가문을 중심으로 한 세도정치가 펼쳐지면서 보수화되고 경직화되어 가는 한편, 문화나 사상 면으로는 전대 박지원이나 이옥 등의 우도론(友道論), 성정론(性情論)과 같이 수직적 질서가 아닌 수평적 관계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해석 등 기존 질서에 대한 문제 제기의 자장 하에 있기도 하였다. 소설은 서사를 통해 현실을 매개하고 반영하며, 국문장편소설처럼 권력의 상층부를 구성하고 있는 가문들이 중심이 되는 서사는 고전소설의 다른 하위장르들에 비해 권력의 역동을 보다 잘 내포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몽쌍룡기>는 반동적 자극을 제공하는 악인형 인물들의 악행에 의해 서사가 추동되고 전개되므로 결국 악행들이 중심 사건이며 악행에 대한 서사적 처리, 귀결은 서술자의 문제의식과도 관련된다. 이 절에서는 <현몽쌍룡기>의 서술자가 악행을 처리하는 과정을 고찰하여, 이를 통해 서술자의 궁극적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작품의 악인형 인물들은 성품이 악하고 물질적 욕망과 성적 욕망이 강해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 악인형 인물들의 이 두 가지 욕망이 서로 결합하면서 상승 작용을 거쳐 지속적으로 성적 위협에 노출되는 인물들이 정소저와 양소저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호색한인 남성 악인형 인물들은 두 여성인물을 극한 상황으로 몰고 편의에 따라 상대를 바꿔가며 성적 환상을 이어간다. 양소저의 경우 자신은 모해 당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외간남자의 편지를 받고 시집의 어느 한 곳에서 외간남자와 재회하는 여성으로 재구성되면서 섹슈얼리티를 침해당한다. 정소저는 이미 한 정혼을 깨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라는, 정절 교육을 잘 내면화한 여성이라면 열녀로 죽겠다는 결심을 했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한다. 중문 밖을 벗어나지 않아도 성적 위협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두 여성인물은 남북하고 도망

하며 길 위에서 방황하거나 시비에게 자기를 대신해 위협에 처해 달라고 부탁한다. 그런데 막상 이 작품에서는 악인들이 성적 욕망을 부리는 양상만 반복되고 소저들의 경우는 위기만 강조된다. 그것도 두 소저가 남성 악인과 단 둘이 밀폐된 공간에 처하게 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녀들은 억울한 수난을 당하지만 정절 면에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한 채 서술되고 있다. 지근거리에서 양세와 박수관과 직접 대면하여 감정을 살피고 성적 결합의 가능성까지도 감내해야 하는 이들은 그녀들의 충성스러운 시비들인 섬량과 벽란인 것이다. 두 소저가 성적 위협에 노출될 때마다 구원의 손길이 존재하며 충성스러운 시비들이 그녀들을 대신함으로써 두 소저의 성적 위기는 마무리된다. 사실 조부의 며느리인 정소저와 양소저의 정절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녀들은 궁극적으로는 서사에서 퇴출당하게 될 것이다. 가부장 혈통의 순수성이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보인다. 그러면 그녀들은 시집 선산에 묻히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⁶¹⁾. 그러므로 두 소저의 정절이 실제로 위협을 당하는 성적인 내용의 장면화는 처음부터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 작품의 성적 모해와 위협에 대한 서술

61) 실제 역사를 보면 병자호란 때 자결하지 않고 청나라에 잡혀갔던 양반 여성들의 운명은 기구하였다. 생사조차 위태로웠던 그녀들이 환향하였을 때 그녀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정절을 잃은 여성이라는 불명예뿐이었다. 일례로, 장유는 절개를 잃은 여자와 부부가 되어서 선조의 제사를 받들 수 없다고 하여 자기 며느리가 속환된 후에 상소를 올려 아들을 다시 장가들이게 해 달라고 청하였다. 영의정이었던 최명길은 그렇게 하면 원한을 품는 부녀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하며 제청을 못하도록 하였으나, 장유가 죽은 후 그 부인이 다시 글을 올려 마침내 임금의 허락을 받아낸다. 이런 일은 임진왜란 때에도 있었다. 그때에도 선조는 이는 음탕한 행동으로 절개를 잃은 것과는 견줄 수 없다며 허락하지 않았다. 선왕의 어명이 있었음에도 청에서 돌아온 환향녀들은 여전히 시댁에서 쫓겨났으며, 그 남편들은 새장가를 들어 다시 맞은 부인을 정실 부인으로 여겼다. 권필의 딸도 강화도에서 개성부까지 끌려갔다가 속환되었는데, 그 후 자기 아들에 의해 사당에서 출향당하고 만다. 이공익, 민족문화추진위원회(역), 『연려실기술Ⅵ』, 민족문화추진회, 254-256, 1988.

은 궁극적으로는 악인의 성적 탐욕과 악행을 부각시키며 장르 관습⁶²⁾에 익숙한 독자들의 시선을 잡는 데 기여한다.

이보다 더 문제적일 수 있는 부분은 부모 자식 간의 강상 윤리의 이면을 노정했던 지점이다. <유선쌍학록>과 같은 작품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 맹타(猛打)를 가하는 장면들은 간혹 등장한다. 부자간의 맹타도 강상 윤리에 저촉될 터인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고, 살부(殺父) 목적으로 자객을 고용하며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를 찌른 범인으로 단박에 아들을 때려린 것은 분명 패륜의 극단을 보여주는 설정이다. 충격적인 사건은 저간의 사정이 있기 마련이고 그 경험을 공유한 이들에게 정신적 외상을 남긴다. <현몽쌍룡기>에서는 이 같은 악행이 서사적으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왜냐하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보이는 사건들이 실은 당대 왕실에서도 일어났기 때문이다. 광해군은 즉위 후 어머니 항렬의 인목대비를 폐위하였고, 천륜을 거스른 이 행동은 폐위 과정에서 정치적 문제로 비화했으며 훗날 인조반정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비록 친어머니는 아니었지만 이 사건은 분명 아들이 어머니를 부정(否定)한 사건으로, 강상의 윤리에 저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목대비 폐위보다도 더 강하게 환기가 되는 사건은 임오화변⁶³⁾이다. 양임과 양세 그리고 양인광을 둘러싼 서사는 실은 영조와 사도세자 그리고 정조의 관계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⁶⁴⁾. 양임은 가문을 위해 천륜을 끊는 고통을 감당해 가면서

62) 가문 서사를 중심으로 하는 국문장편소설에는 여성주동인물에 대한 정절 모해 단위 담이 자주 차용되곤 한다. 그러므로 가문 서사에 익숙한 독자들이라면 이 같은 정절 모해와 관련한 사건을 기대할 수 있으며 그 변주를 즐길 가능성도 추측 가능하다.

63) 임오년(1762)에 영조가 아들을 뒤주에 가둬 죽인 사건이 임오화변이다.

64) 허순우는 <현몽쌍룡기>의 창작 연대를 18세기로 전제하는데 이는 정황적으로 재구성한 견해로서, 구체적인 기록을 토대로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1848년에 완성된 홍희복의 <제일기언> 서문에는 이미 <현몽쌍룡기>의 후편인 <조씨삼대록>의 제명이 보이므로 <현몽쌍룡기>의 창작 연대는 최소한 그 이전일 것임은 분명하다. 이 작품

악인인 아들 양세⁶⁵⁾를 호적에서 지우고 손자 양인광을 친자로 삼는다. 영조는 살인을 하고 정신병[衣帶症]을 앓으며 주색잡기에 빠지고 부랑자들과 어울리는 포악한 아들 사도세자⁶⁶⁾에 대한 골육지책으로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인 후 세손을 후사로 삼았다. 임오화변을 둘러싸고 많은 인물들이 죽음을 당했으며 정조가 즉위하자 이 사건은 대를 이어 정치적 긴장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 작품의 서술자가 영조와 사도세자 중 어느 쪽 입장을 지지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영조-사도세자-정조’의 서사와 유사한 구도를 보이는 ‘양임-양세-양인광’의 서사는 당대 현실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릴 수 있는 문제이다. 또 이 맥락에서 보면 자신을 죽이려 한 인물이 아들일 것이라고 의심하는 정세추의 형상 역시 아들 혹은 아들의 추종 세력을 두려워하는 영조의 이미지와도 겹쳐진다. 물론 양임은 긍정적인 가부장 상으로, 정세추는 판단력 흐린 못난 가부장 상으로 대비되기에 어느 한 인물이 바로 영조에 빚댄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물론 임오화변과 관련한 추정이 이 작품의 악행을 설명하기 위한 필요충분한 전제는 아니다. 그러나 이 작품의 악행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부자간의

의 ‘양임-양세-양인광’의 서사가 반드시 ‘영조-사도세자-정조’의 실사에서 취해 온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 다만 창작 연대가 18세기 후반이라면 임오화변(1762)이라는 충격적인 역사적 비극이 소설 창작의 소재 원천이 되기에 충분하리라는 가능성만은 열어 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주 5) 참조.

65) 양세의 악인 형상화에서 동원되는 악행은 <한중록>이나 <영조실록>을 통해 드러나는 사도세자의 악행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66) 사도세자가 이렇게 죽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그의 부인 혜경궁 홍씨가 남긴 <한중록>에 자세하게 적혀 있다. 물론 이 글은 혜경궁 홍씨의 입장에서 서술된 기록이다. 그런데 영조가 아들 사도세자를 죽이게 된 것은 당대의 정치적 역학구도가 보다 본격적인 사유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영조는 노론이 기반인 데 비해 사도세자는 소론, 남인파도 가까이 정치적 견해가 달랐으며, <영조실록>을 보면 ‘변란이 호흡 사이에 있다’는 나경언 등의 고변에 의해 영조는 아들을 정치적으로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영조실록> 99권, 38년 윤5월 13일.

문제는 임오화변과 연관하지 않는다 해도 심각한 문제를 던진다. 그것은 정천희로 형상화되는 강상 윤리의 수호가 실은 매우 이념적인 수준의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고발이자 문제제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조선 당대에 당위와는 다른 현실의 사례들이 존재했으며 <현몽쌍룡기>는 그 같은 사례를 소설화해서 보여준 것이다. 그렇다면 <현몽쌍룡기>는 작품에서 벌여 놓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어떤 서사적 귀결을 마련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 작품에서 서사를 추동한 것은 두 여성인물에 대한 정절 모해이다. 그런데 이 정절 모해의 원인은 양세의 경우는 양소저와 조성 쪽으로 상속권이 이양될 가능성도 내포하는 양임의 말 때문이었고, 양소저에 대한 5년 동안의 정절 모해가 탄로날 위기는 결국 양세가 아버지 양임을 제거할 결심을 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정절 모해의 원인은 양임의 말 때문이었는데, 양세가 호적에서 제거 당하는 원인은 보검을 내주며 자객을 고용하는 양세 자신의 말 때문이다. 양임은 아들을 칼로 죽이려 하다가 부자의 정으로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약을 선택했는데 역시 이번에도 양세는 죽을힘으로 버티며 아버지의 상투를 잡고는 두 손으로 아버지를 치고 달아났다. 서술자는 이 장면에서 ‘인륜이 깨어지고 만고에 강상의 큰 변 중에 이 같은 일이 없었다’라고 하였다. 양임은 충격에 스스로 자기 목을 베어 죽고자 시도하기까지 하며 ‘일마다 분하고 서러워하다가’ 결국 병을 얻는다⁶⁷⁾. 박수관 경우는 정소저가 미모라는 박씨의 말에 혹하여 정절 모해를 시작하였고 양세와 연결되며 다양한 악행을 모의하다가 차평자에게 조성을 모해해 달라고 부탁하면서⁶⁸⁾ 다시 양세 쪽과 결

67) 12권, 19-24면.

68) 차평자는 양세 쪽 인물이다. 박수관이 조성 음해를 차평자에게 부탁하자 차평자는 자신은 조성과는 원수진 일이 없지만 박수관이 보여준 두터운 정과 양세의 간청을 생각하여 돕겠다고 한다. 10권, 71면.

탁된다. 그런데 초왕이 동궁을 원망하여 반역하려는 마음이 생겨 박수관, 차평자, 양세 등을 한 자리에 불러 모으게 되고 그 과정에서 박수관과 자기 집에서 도망한 양세가 다시 결집한다. 이렇게 해서 <현몽쌍룡기>에 등장하는 모든 악인들이 함께 모여 반란을 일으키고 그들을 몰리치기 위해 조무 형제가 출정한다. 이 설정으로 인해 조무 형제가 작품 내내 악행을 저지르며 이합집산했던 악인들을 모두 모아 일망타진하는 수순으로 서사가 전개된다. 모든 악인들을 잡았으니 조무 형제의 공은 단지 반란을 다스린 데서 그치지 않게 된다. 악인들의 죄상을 심문하면서 빛나는 활약을 보여주는 인물은 조성이다. 그는 반역에 대한 죄상만이 아니라 그 전의 악행들까지도 다 망라하면서 악인들의 형편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형벌을 부과한다. 그런데 천자가 양임은 용서하려고 하자(69), 조성은 훗날의 부담을 덜려면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임도 잠시 유배를 보내는 게 낫다고 간언한다. 또 정세추와 박씨가 상소한 정천희의 옥사도 선명하게 처결한 후 박씨와 정세추를 벌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천희까지도 고려하여 가장 타당한 방안을 제시한다. 이렇게 해서 <현몽쌍룡기>의 모든 악행은 모두에게 합당한 방식으로 깔끔하게 처리된 것으로 서술된다. 패륜의 악행의 어느 한 끝이 서사의 후반부에서 앙금을 남기는 경우도 없이(70) 서사

69) 박수관의 경우는 삼족을 멸한다. 그런데 양임은 그 전에 이미 양세와는 천륜을 끊었으므로 양세가 반역에 가담했어도 삼족을 멸하는 죄는 피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70) <소현성록>의 경우, 서사 앞부분에서 행해진 교영의 독살 사건은 후편인 <소씨삼대록>의 뒷부분에서 운명에게 소환된다. 운명은 자기 집안에서 그런 불명예스러운 사건이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그 이유는 아무도 교영의 실절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소부 밖의 사람들에게는 다 소문이 나서 결국 소현성의 지식들만 모르는 형국이 된다. <소현성록>의 서술자는 이 극단적인 사건을 작품 전반에서 마무리되게 하지 않았고 그 결과 강력하게 통제되어 왔던 소부 여성의 실절과 독살 사건이 작품 후반부에서 그 그림자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의 자족적인 회로 안에서 마무리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당대 현실 맥락 속에서 진지하고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할 사건들이 여운도 남기지 않은 채 처리되었고, 결국 조무·조성 형제를 돋보이게 하는 기제로, 그 중에서도 조성의 정확하고도 현명한 판단을 빛내 주는 수단으로 서사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양임은 서술자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는 인물이었지만 치가에 실패하였다. 양세 같은 악인형 아들을 두어서이다. 이에 비해 같은 긍정적 인물인 조숙은 치가에 성공하였다. 그 원인은 바로 훌륭한 자질을 갖고 태어난 쌍둥이 아들 덕분이었다. 본인이 아무리 탁월한 자질을 지녔어도 어떤 아들이 태어나는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 작품은 천의를 강조하는데⁷¹⁾ 이 같은 환원론적 태도는 결국 양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을 연출한다. 어떤 이유로든 아들이 아버지를, 혹은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 했다면 이는 보이지 않는 상흔을 남기기에 충분한 사건이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드러난 부자 관계의 참담한 양상들은 악인들이 징치된 후 서사에서 더 이상의 흔적도, 양금도 남기지 않는다. 황제의 특사로 죽음을 면하는 대신 귀양 간 양임이 자신들의 슬픈 처지에 눈물을 흘린다는 언급이 한 번 있을 뿐이다⁷²⁾. 그 사건으로 인한 상처도, 치유되지 않은 혹은 통제되지 못한 채 빠져나오는 감정의 잉여도 없이 악행들은 서사에서 사라지고 대신 양임의 복귀와 조부의 영화가 전면화된다. 조성이 죄인들을 다스린 이후 그 문제들 역시 다스려진 것으로 간주된 것이다. 설정했던 문제가 당대 현실 맥락에 비추어 혹은 소설의 서사적 관습에 비추어 심각한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 것이었는데, 서술자는 더 이상 그 사건의 영향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 그 사건들은 서사에서 다른 문제의식이나 의미

71) 임치균, 242-244면.

72) 16권, 96면.

를 생성하는 데 기여하지 못한 채 상대적으로 조부를 돋보이게 하는 수단으로 소비되고 만 것이다.

4. 결론

앞에서 살펴보았듯 <현몽쌍룡기>에서는 심각한 악행을 전개하였는데 이는 주로 갈등과 사건을 만들어 내는 서사적 동인으로 작용하였고 결과적으로 조부 인물들의 우월함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기여하면서 끝을 맺는다. 주동인물들에게 그 사건들은 심각한 훼손도, 어두운 그림자도 남기지 않은 채 서사는 마무리되고 깔끔하게 정리되었다. 긍정적인 가부장 상에 대해 진지한 모색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 <소현성록>의 소부에는 교영 같은 실절녀도 있었고 세명 같은 반역자도 나왔다. 이런 설정은 악행의 주체가 중심 가문 안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개연성을 보여준 것이다⁷³⁾. 그런가 하면 <유효공선행록> 같은 작품에는 유부의 대를 이을 유연과 유흥의 형제 갈등이 서사의 주된 축을 이룬다. 이에 비해 <현몽쌍룡기>에서 중심에 자리한 조부는 절대로 침범 당하지 않는 공간이며, 조부의 혈통에서는 어떤 악인도 등장하지 않는다.

<현몽쌍룡기>는 가문 서사의 장르 관습을 매우 능숙하게 소화한 작품이다. 가문 서사에서 흔히 등장하는 혼사 장애, 가문 간의 혼인, 정절 모해, 출전 입궁 등의 사건과, 집안 식구들끼리의 대화, 형제 혹은 부부들 간

73) 서사를 전개해 나가는 기법 상의 측면에서 보면 <소현성록> 연작의 서사는 후대 작품들에 비해 서사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드는 사건들이 등장한다. 훗날 도적의 우두머리가 되는 소운숙의 둘째아들 세명의 서사는 너무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교영의 실절을 알게 된 윤성의 에피소드 역시 더 적극적으로 사건화될 수 있는 여지가 보인다. 그러나 이는 본고의 관심과는 거리가 멀기에 여기에서는 상술하지 않기로 한다.

의 갈등과 화해의 내밀한 장면, 웃음을 유발하는 장면의 삽입, 사연(賜宴)으로 진행되는 수연(壽宴), 인물에 대한 묘사 등의 요소⁷⁴⁾가 다 적절하게 들어가 있되 그것이 악행들과 어우러지면서 세부적으로는 차별화된 에피소드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가문소설 연구사를 보면 해당 작품의 묘사가 풍부하고 대화의 장면화를 통해 인물들의 감정을 섬세하게 전달하며 구체적인 일상사가 서술되고 있다는 언급이 반복되며 그것이 작품의 의미인 것으로 설명되곤 한다. 가문 서사에 대한 이 같은 지적은 타당하다. 그런데 이런 요소들은 어느 한 작품의 미덕이라기보다는 소위 가문소설의 장르적 관습에 속한다. 대하소설 중에서도 장편에 가까운 평균적 서사 분량을 지니는 가문 서사에는 전술한 여러 요소들이 포함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물론 작품에 따라서는 그 같은 장면화나 묘사 혹은 구체적인 일상사의 재현 등이 작품의 주제 혹은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도 있다⁷⁵⁾. 일견 비슷해 보이는 섬세함과 풍부함이 있다고 해도 문제의식 면에서는 차이가 날 수도 있

74) 국문장편소설의 이 같은 특징들은 정창권, 백순철 등에 의한 비교적 초기 연구부터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요소들이다. 정창권, 『<소현성록>의 여성주의적 성격과 그 의의』, 『고소설연구』4, 한국고소설학회, 1998; 백순철, 『<소현성록>의 여성들』, 『여성문학연구』, 한국여성문학학회, 1999.

75) 그 대표적인 작품이 <소현성록> 연작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작품에 대한 초기 연구사에서는 대화의 장면화나 구체적 일상의 담지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소현성록>의 작가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같은 부분들을 결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작가가 반드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았다 해도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를 건드리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씨삼대록> 같은 작품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작품의 서술자는 표현 욕구에 충실하게 서사화하는 서술 태도를 견지하다가 문체적 지점을 노출시키게 되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악인형 인물을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노정되는데 악인들끼리의 의리를 그리거나 혹은 악행의 동기가 끝까지 일말의 진정성을 유지하여 결국 악인의 죽음으로 귀결되는 결말을 보여준다든지 하는 경우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달리하여 논하기로 한다.

어, 가문서사라면 으레 나올 법한 요소를 등장시키는 관습화된 설정일 수도 있는 것⁷⁶⁾이다. 물론 <현몽쌍룡기>에도 충분히 장면화된 대화, 섬세하게 형상화된 사건 서술, 지배담론과 배치되는 위트와 유머 등의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으나 이는 <현몽쌍룡기>만의 미덕이라기보다는 장르적 특징에 가까운 것이다.

<현몽쌍룡기>가 유교적 가부장제의 과도기적 현상이나 친정과 관련한 여성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논의에서도 이 작품에 등장하는 외손봉사와 같은 재산권과 제사권의 행사, 가장의 역할, 친정 인물의 부각 등에서 유교적 중벌제가 확고하게 확립되지 않았던 18세기 초중반까지의 과도기적 모습을 발견된다거나⁷⁷⁾ 이 작품은 여성들에게 친정이란 자신들이 태어난 근원으로 감정적으로는 가깝지만 혼인과 더불어 멀어져야만 했던 공간임과 동시에 그 공간은 남성들에게는 감정적으로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되 정치적으로는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만 했던 처가 공간임을 보여준다고 설명⁷⁸⁾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 수난담과 관련하여 타당한 설명이라 하겠다. 그런데 여성 현실을 형상화하기 위해서 굳이 이런 악행을 설정해야만 했을까?

부모도, 재판을 맡은 관리도, 나아가 천자도 해결하기 어려웠던 이 작품의 악행들은 조무와 조성 형제에 의해 깨끗하게 정리된다. 그 사회의 상층부를 구성하는 인물들이 보이는 범죄적 욕망 및 이념과 선택의 괴리

76) <현몽쌍룡기>에서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경우를 든다면 조소저들의 역할이다. 친정에서 지내는 딸들의 형상화가 잘 이루어진 작품으로는 <소현성록>을 들 수 있는데, <현몽쌍룡기>의 조소저들은 소부가의 딸처럼 한 개인으로서의 구체적 형상화는 획득하지 못한 채 대화 장면에서 마치 희랍극의 코러스와 같이 발화한다. 희랍극의 코러스는 원래 개별화된 등장인물이 아니며 극 전개상 중요한 정보들을 제시하지만 조소저들은 가문소설의 친정 딸들이면 으레 그랬을 법한 관습화된 제스처를 보일 뿐이다.

77) 장시광, 383-384면.

78) 최수현, 326면.

등 <현몽쌍룡기>의 서술자가 악행의 전개를 통해 건드린 문제는 심각하다. 그런데 그 부분이 문제의식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충격적인 장면들을 연출하다가 조부를 부각시키는 수단으로 소비된 것이다. 바로 이 지점이 <현몽쌍룡기>의 문제의식이 진지하지 않음을 드러낸다. <현몽쌍룡기>는 잘 짜인 서사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진지한 작품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작품에서 내세운 문제가 현실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그 문제들이 수월하게 해결되고 만다면, 그래서 독자들에게 일종의 감정적 배설로 소비되고 만다면 그 작품은 문제의식이 진지한 작품은 아닐 확률이 높다. 고전소설의 통속성⁷⁹⁾을 운위하는 기준으로 남녀 간의 성적 결합이나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의 설정을 거론하는 것 또한 진부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온당하지 않은 평가가 될 수도 있다.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의 설정 자체가 통속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그 자극과 충격이 작품의 문제의식과 긴밀하게 연관되지 않은 채 전시되고 해소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가치평가적 의미에서의 통속⁸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현몽쌍룡기>는 오락적인 읽을거리를 원하는 독자의 취향에 맞춰 창작된 잘 만들어진 작품이지만 문제적 작품은 아니다. 잘 만들어진 이 긴 서사는 규범적으로 재단되어 있어, 작품에서 당대의 지배 이념을 비집고 나오는 문제 제기를 찾기는 어려우며, 오늘날의 일일연속극처럼 장르 관습에 익숙한 능숙한 서사 솜씨를 보이는 작품이라 하겠다.

79) 통속성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특히 중세문학의 경우, 우아하고 고답적인 상층의 문학에서 시정의 세태를 다루는 문학으로 옮겨가면서 얻게 되는 통속의 표지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고를 탈리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80) 기존 논의에서 통속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기법으로서의 통속이며, 다른 하나는 가치평가적 맥락에서 부정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 통속이다.

참고문헌

자료

- <현몽쌍룡기> 18권 18책,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
 김문희(역), 『현몽쌍룡기 역주 1』; 김문희(역), 『현몽쌍룡기 역주 2』; 김문희, 조용호, 장시광(공역), 『현몽쌍룡기 역주 3』, 소명출판, 2010.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intro/intro_info.jsp.
 이궁익, 민족문화추진위원회(역), 『연려실기술VI』,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8, 1-680.
 혜경궁 홍씨, 김선아(역), 『한중록』, 현암사, 2009, 1-331.

논저

- 강미선, 「<현몽쌍룡기> 연작의 서사구조 연구」, 『어문연구』통권 145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0, 207-229.
 김문희, 「<현몽쌍룡기>의 서술문체론적 연구」, 『고소설연구』23, 한국고소설학회, 2007, 69-96.
 박경열, 「가정소설에 나타난 악인의 형성조건과 그 의미」, 『겨레어문학』39, 겨레어문학회, 2007, 107-136.
 박일용, 「<현몽쌍룡기>의 창작방법과 작가의식」, 『정신문화연구』26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31-53.
 박희병, 「17세기 초 송명배호론과 부정적 소설주인공의 등장」, 『한국고전소설과 서사문학(상)』, 집문당, 1998, 1-707.
 백순철, 「<소현성록>의 여성들」, 『여성문학연구』, 한국여성문학학회, 1999, 127-154.
 서경희, 「가정소설에 나타난 친자 살해 연구」, 『국어국문학』154, 국어국문학회, 2010,
 임치균, 「<현몽쌍룡기> 연구」, 『국어국문학』113권, 국어국문학회, 1995, 223-247.
 장시광, 「<현몽쌍룡기> 연작에 형상화된 여성수난담의 성격」, 『국어국문학』 152, 국어국문학회, 2009, 365-410.
 정환국, 「17세기 소설에서 ‘악인’의 등장과 대결구도」, 『한문학보』18, 우리한문학회, 2008, 557-587.

- 정창권, 「〈소현성록〉의 여성주의적 성격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4, 한국고소설학회, 1998, 293-327.
- 조광국, 「〈소현성록〉의 벌열 성향에 관한 고찰」, 『온지논총』7, 온지학회, 2001, 87-113.
- 조용호, 『삼대록소설 연구』, 계명문화사, 1996, 1-482.
- 조현우, 「〈사씨남정기〉의 악녀 형상과 그 소설사적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6, 319-348.
- 최수현, 「〈현몽쌍룡기〉에 나타난 친정/처가의 형상화 방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5,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325-362.
- 허순우, 「〈현몽쌍룡기〉 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2009, 1-200.

ABSTRACT

A Study on the Way Villain Characters' Improper Conducts are
 Narrated and Its Connection to Popular Tastes in *Hyunmongssangryonggi*

Cho, Hae-Ran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how the evil thoughts and conducts in villain characters in *Hyunmongssangryonggi* (現夢雙龍記) reflect the writer's consciousness of his times. This work is remarkable in presenting lots of wicked practices by villain characters in a very shocking and sensational way. The most notable improper act in this work is crimes against the fundamental ethical codes in a fatherson relationship. In this work we can find the kind of son who tried to kill his own father either by himself or by an assassin whom he himself had employed. We can find also the kind of father who assures his own son as an assassin who tried to take away his own life. Besides, there is another father who petitioned to the king to allow his attempts to remove his son's name from the family register and to replace it with his grandson's name for the sake of his family's prosperity because he had thought his son was very improper. These kinds of practices between fathers and sons are rarely seen in the narrative conventions in classic novels and in the everyday life of a real world. But within the palace in Chosun dynasty, similar things happened. It was the dethroning of Queen Inmok by King Kwanhye, and the murder of the prince in a cruel way and the replacement of its place with his grandson by King Youngjo. In this sense, this work reminds us of this historical event.

Given this contextual understanding, the evil practices of this work is worth analysing. For the analysis of how the evil acts are narrated in this work will show whether this work show the deep consciousness of the problems of his contemporary or it just tries to reflect the popular tastes. Generally the previous studies on the family saga of classic novels have

been accumulated to some degrees, and *Hyunmongssangryonggi* also has been studied to help to understand its fundamental characteristics and contexts. Based on these previous studies, I think, it is time to try to evaluate the quality of an individual work. With this kind of consciousness, I analysed the villain characters' improper conducts of this work and came to conclude that this work is short of serious awareness to see the problems of his times and rather it tries to meet the popular taste like a well-made-play.

Key Words *Hyunmongssangryonggi*(現夢雙龍記), the villain, improper conducts, popularity, Confucian moral principles, antagonist

논문투고일	: 2011. 3. 31
심사완료일	: 2011. 5. 20
게재확정일	: 2011. 5. 31